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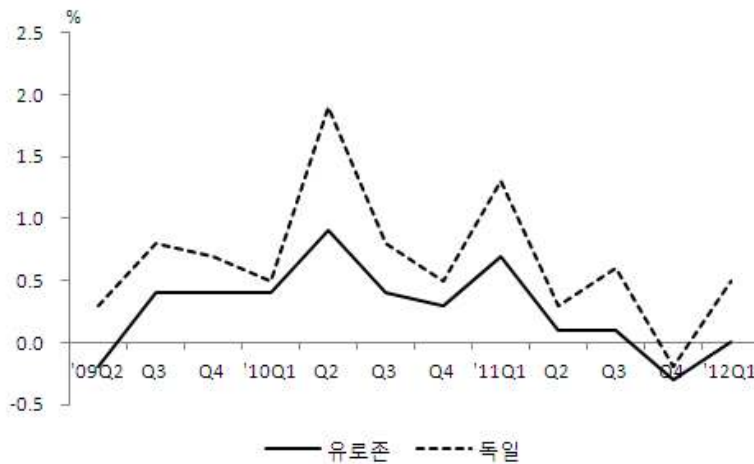
유로존 1/4분기 제로 성장, 2/4분기 경기침체 진입 예상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1/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를 기록하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 진입은 잠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임.

- Eurostat에 따르면 유로존의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.0%를 기록함.
 - 전문가들은 2011년 4/4분기(-0.3%)에 이어 2012년 1/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(예상치 -0.2%)하며 유로존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음.

〈그림1〉 유로존과 독일의 경제성장률(전분기대비)



자료: Eurostat,

■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된 것은 독일의 성장세가 주변국들의 성장 부진을 상쇄하였기 때문임.

- 2012년 1/4분기 독일 경제는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국내 소비 증가로 전분기대비 0.5% 성장, 예상치 0.1%를 상회함.

- ABN Amro는 2012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독일의 수출 증가를 전망함.
- 반면, 프랑스는 전분기 대비 0.0%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, 재정위기로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-0.8%와 -0.3%의 성장률을 기록함.
 - Societe Generale은 신정부 출현으로 프랑스 경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강력한 재정긴축은 프랑스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.
 - Barclays Capital은 이탈리아의 경우 민간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에 기인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는데, 긴축정책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 중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- 특히, 그리스는 1/4분기에 -6.2% 성장하여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.

■ 유로존의 경기침체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.

-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1/4분기에는 가까스로 경기침체를 피했으나, 2/4분기에는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각국의 긴축재정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함.
 - 2/4분기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유로존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.
- 유럽집행위원회(EC)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2년 -0.3%, 2013년 1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 - Commerzbank는 2012년 하반기에 유로존 경제가 다소 회복하겠으나, 이를 경제안정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으며, Re-Define금융정책연구소는 취약한 은행부문과 신용경색, 낮은 신뢰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EC 전망치는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함.
 - EC는 독일 경제는 2012년 0.7%, 2013년 1.7% 성장할 것으로, 프랑스 경제는 2012년 0.5%, 2013년 1.3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- 반면,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 -1.4%, 2013년 0.4% 성장할 것으로, 스페인의 경우 2012년 -1.8%, 2013년 -0.3% 성장할 것으로 전망.

(Bloomberg 5/11, Eurostat)